

1 개요

마라도본향 애기씨 본풀이는 마라도 아기업게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.

대정읍 상모리 해녀들을 따라 마라도로 갔던 업저지가 희생양으로 홀로 남겨져 죽은 뒤에 당신으로 섬겨지기 시작하였다.

2 내용

대정읍 상모리 알드르 해녀들은 무리를 지어 마라도로 물질을 다녔다. 어느 해 이 마을 해녀 셋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라도로 물질을 갔다. 해녀 가운데 이씨 집의 해녀가 갓 난아기를 두고 갈 수 없어 물질을 가면서 아기와 업저지를 함께 데리고 갔다. 업저지는 허씨로 당시 14세였다.

해녀들은 마라도에 이르러 물질을 하려고 하였으나 때는 5월 장마여서 갑자기 파도가 거세어졌다. 물질을 포기하고 섬에서 빠져나가하고자 하였으나 배를 띄울 수 없었다. 하는 수 없이 사흘을 장막을 치고 지내면서 기다렸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. 아무것도 없는 마라도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었다.

하루는 해녀의 꿈에 산신대왕이 나타나 열네 살 처녀를 두고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였다. 해녀들은 자신들의 살 길은 달리 없다고 믿고 업저지만 남겨두고 배에 올랐다. 그러자 과연 파도가 잦아들어 배를 타고 물으로 나갈 수 있었다. 홀로 남겨진 업저지는 뒤늦게 배가 떠나는 것을 알고 함께 데려가라고 울부짖으며 소리쳤으나 소용이 없었다.

결국 그렇게 업저지는 속절없이 굶어 죽고 말았다. 다음 해 4월 해녀들이 다시 마라도로 가서 보니 뼈만 남아 있었다. 이에 마을에서 그 자리에 당을 만들고 애기씨를 일월중저로 모시기 시작하였다.

3 특징

이야기만으로는 당신본풀이라기보다 전설에 가까운 내용이다. 실제로 전설로 많이 운위

되기도 한다. 처녀당본풀이에 속한다.

이는 그 중에서도 공동체에 희생당한 뒤에 당신으로 모셔지는 사례에 속한다.

4 핵심어

대정읍 상모리, 알드르, 해녀, 마라도, 물질, 산신대왕, 업저지, 일뤼중저, 아기업게당

5 원전 서지사항

마라도본향 애기씨(진성기, 《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》, 민속원, 1991)

6 관련 자료